

# 막 오르는 주총... 화두는 사외이사·신사업·여성·주주가치

삼성전자 15일 정기주총 개최  
한종희 사내이사 선임 등 상정

LG전자 27일 주총, 사업목적에  
기간통신업·화장품판매업 추가

SK하이닉스 여성 사외이사 확대  
현대차·기아, 중고차 사업 진출

국내 주요 기업들이 이번주부터 정기 주주총회 시즌에 본격 돌입한다. 올해 주총의 관전포인트는 사업확대와 사외이사 선임, 주주가치 제고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특히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문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미래 사업 육성 집중 나선 '전자·車'

오는 15일 경기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제 54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삼성전자는 ▲재무제표 승인 ▲사내이사 한종희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디바이스경험(DX)부문장인 한종희 부회장의 사내이사 임기가 다음달 17일 만료되는 만큼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을 다룬다.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의 안건도 다룰 예정이다. 다만 이번 주총에서 관심을 모았던 이재용 회장의 등기이사 선임 안건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 회장은 4대 그룹회장 가운데 유일하게 미등기 임원이다. 등기이사가 이사회에서



지난해 3월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제53기 삼성전자 정기주주총회가 진행되고 있다. /손진영 기자

회사 경영에 대한 의사 결정을 내리고 법적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업계에서는 이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가 책임경영 선언의 마지막 퍼즐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LG전자는 오는 27일 주총에서 사업 목적에 '기간통신사업'과 '화장품 판매업'을 추가할 방침이다. 화장품판매업의 경우 LG전자가 판매하는 뷰티기기의 의료기기와 결합해 사용이 필요한 화장품품을 판매할 계획이다. 고객의 구매를 돕고, 제품 활용 가치를 확대하기 위한 결정이다.

LG전자는 미래 사업으로 육성중인 전장 사업의 역량 확대를 위해 스마트 모빌리티 전문가인 서승우 서울대 전기공학부 교수를 사외이사로 추천하기로 했다. LG디스플레이는 21일 박상의 한

국과학기술원(KAIST) 신소재공학과 교수를, LG에너지솔루션은 24일 박진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을, LG화학은 28일 천경훈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한다.

SK(株)는 오는 29일 주총을 열고 배당일 관련 정관 변경 안건을 논의한다. 또 1세대 미국 여성 변호사인 박현주 법무법인 세종 선임의국변호사를 사외이사 후보로 선임할 계획이다. SK이노베이션은 30일 김주연 전 P&G 오랄케어&그루밍 한국·일본지역 부회장과 이복희 롬앤드하스전자재료사업부코리야 대표이사를 선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한다. 소재 부문 계열사인 SKC는 28일 채은미 전 페덱스코리아 사장, 김정인 하이퍼라운지 대표를 사외이사 후보로 선

임하는 안건을 상정한다.

SK하이닉스는 29일 주총서 여성 사외이사를 종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안을 논의한다. 김정원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과 정덕균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석좌교수가 신규 사외이사로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와 기아는 각각 23일과 17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인증 중고차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관 내 사업 목적에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추가한다. 인증 중고차 사업 준비를 본격화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현대차는 지난해 인증 중고차 사업 진출을 계획했다가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 권고로 올해 5월로 진출 시기를 미뤘다. 최근 중고차 시장 침체로 중고차 사업 개시 시점을 올 하반기로 재차 연기한 상황이다.

### ◆조선 등 중후장대 산업 변화 예고

포스코홀딩스가 상정한 안건중 주목되는 것은 ▲본점소재지 변경의 건 ▲사내이사 선임의 건이다. '본점소재지 변경' 안건은 포항 시민과 관련 지역 단체들이 포스코홀딩스 본점 주소를 서울에서 다시 포항으로 옮기라고 요구했던 사안이다. 당초 포스코가 지주사로 전환하면서 사업회사인 포스코는 포항에 본점을 둔 반면 포스코홀딩스의 본점 소재지를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40 포스코센터'로 옮기면서 갈등이

촉발됐다.

그동안 포항 지역 시민단체들은 상경 시위 등을 통해 포스코홀딩스 본점 주소지의 포항 이전을 촉구하며 최 회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등 전방위적인 압박에 들어갔다.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 본점 소재지 변경 안건 통과는 무리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논란의 소지도 있다. 포스코홀딩스의 상당수 이사들이 주주 가치 제고와 그룹의 중장기 성장 비전을 고려해 본사 주소지 이전에 강한 반대 의사를 개진한 바 있다.

세계 1위 아연 제련업체 고려아연은 오는 17일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70년 넘게 동업을 유지해왔던 영풍그룹 장형진 고문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간 지분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라서, 이번 주총 결과가 더 주목된다.

한국 조선업계의 만행인 HD현대는 변화를 예고했다. HD현대의 조선사업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은 이번 주총에서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등의 안건을 상정해 승인받을 계획이다. 한국조선해양은 '정관 일부 변경의 건'에서 사업목적 변경을 통해 기존 '부동산 매매업 및 임대업'과 '건물 관리 및 용역업'으로 나뉘었던 조항을 '부동산업(개발, 매매, 임대, 공급 및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관리 및 용역)' 단일 조항으로 병합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LG, 친환경 고효율 히트펌프로 유럽 공략

獨 '냉난방 공조 전시회' 참가  
가정용·상업용 솔루션 소개  
'써마브이' 유럽 ErP 등급 최고

LG전자가 유럽에 맞춤형 냉난방 솔루션을 앞세운 공조 기술력을 뽐낸다.

LG전자는 13일부터 17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리는 냉난방 공조 전시회 'ISH 2023'에 참가한다고 12일 밝혔다.

LG전자는 489㎡ 규모 복스를 마련하고 가정용과 상업용 고효율 냉난방 공조 솔루션을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LG전자는 유럽 현지에서 탈탄소 기조에 따른 고효율 제품 인기에 따라 주목받는 히트펌프 냉난방시스템에 초점을 맞춘다.

'써마브이'가 주인공. 써마브이는 외부 공기에서 얻는 열에너지를 냉난방에 사용하는 '공기열원 히트펌프(AWHP)' 방식으로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했다. 유럽 ErP 에너지등급 중 가장 높은 A+++를 만족한다. 유럽에서는 공기열



LG전자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리는 냉난방 공조 전시회 'ISH 2023'에 참가해 친환경 공조 기술력을 소개한다.

원을 신재생에너지로 간주하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 이 제품은 높은 출력, 낮은 소음 구현 등 차원이 다른 기술력과 차별화된 고객경험을 바탕으로 지난해 유럽시장 매출이 2021년 대비 120% 이상 증가했을 정도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또 히트펌프 설치율이 가장 높은 프랑스를 포함한 LG전자가 공조사업을 하고 있는 유럽국가들 가운데 2/3 이상

에서 지난해 히트펌프 매출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아울러 LG전자는 차세대 친환경 냉매 R290을 적용한 실내외기 일체형 히트펌프 신제품 '써마브이 R290 모노블럭(Therma V R290 Monobloc)'도 공개한다. 지구온난화지수(GWP)가 3에 불과하다.

LG전자는 ESG 경영 일환으로 친환경 냉매를 적용했다. /김재용 기자 juk@

## 삼성전자 소형가구 겨냥 비스포크 정수기 선보

삼성전자는 비스포크 정수기 신제품을 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비스포크 정수기는 빌트인 디자인에 다양한 색상 출수구(파우셋)를 선택할 수 있어 주방 공간을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

점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3일에 한번 내부관을 자동살균하고, 4시간마다 고인 물을 자동으로 배수하는 '스마트 클린 케어' 기능으로 정기 방문 서비스 없이 관리를 받을 수 있다

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이번 신제품은 최대 유효 정수량을 1500L로 줄여 1인 가구나 소형 가구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그러면서 미국국가표준협회(ANSI)와 실험 기관 NSF에서 정수 성능을 인정받기도 했다.

/김재용 기자

## 롯데케미칼-롯데알미늄-삼성웰스토리

### 친환경 패키지 개발 등 'ESG 파트너' 됐다

원료사-제조사-업체간 의기 투합  
재활용 용기 수거 프로세스도 추진

롯데케미칼, 롯데알미늄, 삼성웰스토리가 친환경 패키지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경기도 분당 삼성웰스토리 본사에서 롯데케미칼 윤승호 폴리머본부장(전무), 롯데알미늄 이상원 PM영업본부장(상무), 삼성웰스토리 김현 FSC사업부장(부사장) 등 관련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원료사-제조사-업체간 의기 투합으로 친환경 패키지 개발에 대한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4월부터 삼성웰스토리 급식 사업장의 프레시푸드 및 요거트 등 테이크아웃 제품에 친환경 용기가 사용될 예정으로, 향후에는 사용된 재활용 용기를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프로세스 구축에도 협력 관계를 가져간다는 계획이다.

롯데케미칼, 롯데알미늄, 삼성웰스토리는 각자의 감점과 노하우를 살려 소비자들의 친환경 제품 관심 증가에 부합하는 패키지 개발과 ESG 경영에 더욱 힘을 모으기로 했다.

윤승호 롯데케미칼 폴리머본부장은 "고객사 및 소비자의 친환경 제품에 대한 니즈를 빠르게 파악하고 제품 특성에 맞는 소재 개발에 더욱 힘쓰겠다"며, "롯데케미칼은 고객사의 ESG경영에 최적의 파트너로서 다양한 소재 솔루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상원 롯데알미늄 PM영업본부장은 "이번 화학적 재생 수지를 사용한 친



삼성웰스토리 본사에 열린 협약식에서 기념사진 (좌측부터 롯데케미칼 윤승호 폴리머본부장, 삼성웰스토리 김현 FSC사업부장, 롯데알미늄 이상원 PM영업본부장) /롯데케미칼

환경 패키징 개발 협약을 토대로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경제 및 ESG 경영 실행을 가속화할 계획"이라며 "롯데알미늄은 녹색인증기술을 활용한 친환경 포장재 산업으로 앞으로 꾸준히 기업가치를 높이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한편, 롯데케미칼은 지난해 『Every Step for GREEN』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친환경 리사이클 소재 사업의 규모를 100만 톤 이상으로 늘리는 동시에 원료부터 판매, 사용, 폐기 등 전 과정에서 경제, 환경, 사회 분야에 미치는 영향과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수립 운영 중에 있다.

특히, CR(화학적 재활용)기술은 기존에 재활용되기 어려웠던 폐플라스틱의 소각, 매립을 막을 수 있어 탄소배출량 저감이 가능하며 친환경?탄소저감 포장재, 용기 등을 선호하는 고객사의 수요에도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허정원 기자 zelkova@